

“선농일치의 삶...수확의 계절”

홍성에 노동선방 '일과 깨달음 도량'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월일리 대홍산 앞동네에는 선농일치·선교 일치의 희망을 품은 노동선방 '일과 깨달음도량'이 하루하루 터전을 잡아가고 있다.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만든 법당과 요사채가 들어선 도량 앞에는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뒷편 텃밭에는 가을 채소들이 싱싱함을 더해가는 일과 깨달음도량은, 함께 일하며 수행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각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10여년전 자지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동국대에서 공부하며, 출가 수행의 목표를 바꾸었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필수코스라 선택하는 선방에서의 수행 대신, 중생들과 함께 삶

쉬며 날로 파괴되어가는 우리의 자연과 인간 본성을 되찾는 수행에 매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노동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불교의 좋은 전통들을 오늘에 살려내기 위해 일과깨달음도량을 열었다”는 스님은 노동과 수행이 둘 아니라는 수행관을 생태적 관점과 접목시켜 농촌포교 및 농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3년 전 홍성으로 내려왔다. 이같은 스님의 계획에 이미 최환순, 이한영, 김동보, 윤세홍 씨등 10여명의 젊은 농민들이 동참했다.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홍성지역 농민들에게 유기농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도 할 생각이다.

스님은 올해 벼농사와 옥수수, 쌀, 솔잎차, 감식초, 백팔호소, 매주 등을 생

일각스님과 농민 10여명

대홍산 아래 1만평 터전 간이 법당·요사채 마련

산했으며, 내년부터 된장공장, 효소공장을 짓고 소비자 주문방식의 생산시스템을 마련해 노동공동체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또 지가채를 원칙으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과깨달음도량에 직접 와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농부들의 땅 냄새도 맡아보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과깨달음도량은 '평상심(平常心), 평등물(平等物)'을 실천하며, '선농일치·선교일치'를 청규로 삼아 생활한다. 또한 '새벽 4시 기상, 예불 및 기도-새벽 5시 좌선-새벽



◇일각스님(오른쪽 두번째)은 뜻을 같이하는 홍성지역 농민들과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불교의 좋은 전통들을 오늘에 살려내는 생태마을로 일과깨달음도량이다.

6시 30분 공양 및 일과 토론-오전 8시-11시 30분 노동선 수행-낮 12시-1시 점심공양-오후 1시30분-5시 노동선 수행-오후 6시 저녁공양-저녁 7시-8시 일과 토론 및 자자-저녁 8시 개인수행'으로 이어지는 일과 청규를 기본으로 생활하며, 모든 사의 결정은 공동토론으로 이뤄진다. 서릿발 같은 청규의 정신을 잃은 지 오래된 오늘의 선방 현실이 안타

깝다는 일각스님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잘 여문 생태마을로 일과깨달음도량"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선농일치, 선교일치, 평상심, 평등물의 가치에 동의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도반(사부대중)을 기다린다. (041)631-1033 ilgak@chollian.net 홍성=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희양산 봉암사 사찰림서 고란초 최대군락지 발견

조계종-녹색연합 조사

“산양·담비·천마 등 희귀 동식물 서식 보고”



◇봉암사 경내지에서 발견된 고란초 군락지.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경북 문경 희양산 봉암사 사찰림에서 멸종위기식물(제99호)인 고란초의 국내 최대 군락지가 발견됐다. 하지만 희양산 정상부와 주능선에 많은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어 희귀 법종보호식물과 일부 한국 특산종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조계종과 녹색연합은 11일 지난 5월부터 10월 5일까지 백두대간 희양산 일대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에 걸쳐 있는 400만여평의 봉암사 경내지에 최소 2만개체 이상의 국내 최대 고란초 군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곡의 그늘진 바위틈에 붙어 자라는 상록 다년생인 고란초 서식지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에서 군락이 대량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봉암사 사찰림에는 고란초 군락 이외에도 한국특산종인 피리진달래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됐고 환경부 법종보호종이자 희귀식물인 천마와 솔나리를 포함, 6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립공원을 능가하는 새로운 생태계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양산은 희귀한 바위가 연봉을 이루는 자연경관과 함께 천연기념물인 수달, 산양, 하늘다람쥐, 환경부 법정

보호종인 살팽이와 담비,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이 서식해 시급히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일대는 400만여평 가량의 숲이 사찰림으로 조계종에서 특별관리해왔고 20년이상 산문폐쇄로 일반인의 인위적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보존돼 왔다. 그러나 최근 괴산군청이 희양산 정상부와 주능선을 중심으로 등산로를 조성, 관광지화한 뒤 최근 일요일에 7-8대의 관광버스가 희양산으로 밀려드는 등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태스님)는 "희양산은 지금까지 조계종의 보전과 관리로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의 낙원으로 지켜져왔다"며 "괴산군이 희양산 관광지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 일대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11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아프간 전쟁반대와 세계평화기원 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한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세계평화를 발원하고 있다.

“미국 보복전쟁 반대”

‘비폭력 추진위’ 동참 14개 단체 성명

종교인 500명 명동성당-조계사 평화행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개 단체로 구성된 '비폭력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추진위'(공동대표 박광서, 김기병, 백창기)는 9일 성명을 내고 "테러 원인에 대한 결호한 통찰과 대승적 방식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은 없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공존과 협력, 비폭력과 평화의 논리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도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옹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아 아프간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판)도 성명에서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대이상고통을 주지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교단체들과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개 교단의 종교인 500여명은 11일 명동성당에서 '아프간 전쟁반대와 세계평화 기원 종교인 기도회'를 개최하고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평화행진을 가졌다. 김재경 기자

울진 불영사 인근 속사댐 상류 12.7km에 건설될 듯

건교부 적극검토

울진 불영사 인근 왕피천에 건립 예정이던 속사댐이 상류 12.7km 위쪽인 울진군 서면 왕피리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사이에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기양저수지 190m 아래 저지에는 3,700만본의 댐이 재개발된다.

건실교통부는 최근 울진군과 영양군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의사를 타진했다. 건교부의 의지대로 댐이 건설될 경우 속사댐의 규모가 1억9,700만톤에서 절반 가량인 5,100만톤으로 줄어들어 불영사와 왕피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불교계와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어떤 무마음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민은 부모와 결혼한 자식 종교일치 39%뿐

천주교 75%-개신교 72%

부모와 결혼한 자식간의 종교가 같은 경우가 천주교 75.4%, 개신교 71.5%인 반면 불교는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가 39%에 그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학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가족과 종교'를 발표한 은기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불교인 경우 자식이 무종교를 택하는 경우는 불교를 택하는 경우의 39%보다 10%이상 차이가 나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개신교를 믿는 경우 24%의 자식들이, 천주교의 17%가 무종교를 택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부모의 종교가 무종교+불교인 경우, 68%의 자식은 무종교를 선택해 불교를 믿는 비율(19%)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응답자 부모 부부의 33%가 불교를 함께 믿고 있는 데 반해 자식 부부가 불교를 같이 믿는 경우는 전체 부부의 15%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댐반대 국민행동’ 29일 창립

사자 작성한 댐주변 환경영향평가 검토하거나 공동조사를 추진할 방침

울진 불영사 인근 왕피천에 건립 예정이던 속사댐이 상류 12.7km 위쪽인 울진군 서면 왕피리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사이에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기양저수지 190m 아래 저지에는 3,700만본의 댐이 재개발된다. 건실교통부는 최근 울진군과 영양군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의사를 타진했다. 건교부의 의지대로 댐이 건설될 경우 속사댐의 규모가 1억9,700만톤에서 절반 가량인 5,100만톤으로 줄어들어 불영사와 왕피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불교계와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어떤 무마음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24일 의정부시청 앞 시위

북한산 관통도로 대책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지섭스님)는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70여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관통

도로 저지를 위한 시위를 갖는다. 이에 앞서 불교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24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매주 수, 일요일 도봉산에서 홍보 활동을 서명활동을 벌인다. (031)848-6114 김재경 기자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유체이탈, 쿨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올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시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치료, 유체이탈, 명상리니, 미군과 해외 차크라제일, 에너지지, 기타 학습과 장의, 수련등 21개 프로그램 내강 (기본시양 분해, 녹색광안정, 워드폰 사용제작등/미국 마이크로필사)

- 오라진동수선 (미국 오라시스터스/중국OEM)
- 광안정 (황간, 황색 보라색, 순색) /미국 마이크로필사
- 다이너믹 고주파 레도르 (미국 마이크로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올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올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법입니다.
- 듀얼바이올비트는 6개 상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어,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질을 알아내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음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거나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분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진화주사(뇌피인구와 깨달음) 소파와 키보드로그 우송됩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교신도의 만남, 불변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띄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 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아국 입구 직진 200m정도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향일 빌딩 2층 204호

원장 이영숙 합장

- 다후,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

전화 : 02) 679-5902

H·P : 011) 288-2944

“풍수리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리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뀌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지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재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재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운맥(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지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재만다라와 팔재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에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